‘부강한 광주’ 시민 삶 바뀐다…‘도약의 전남’ 황금시대 연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6년 국비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국비예산 3조9497억원…양적·질적 광주 도약 청신호
5·18 정신계승과 민생·SOC 사업 등 미래 투자 본격화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예산 3조 9497억원은 양·질적으로 광주의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규모로 역대 최다액인데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시민삶을 바꾸는 민생·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간 국비 지원 근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던 5·18 사적지 보존 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예산이 확정되면서 ‘부강한 광주’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5·18 관련 신규 예산의 대거 반영이다.

그동안 지방비로 감당하기 버거웠거나 정부 지원의 근거가 미비해 제자리걸음을 했던 5·18 사적지들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우선 ‘빛의 혁명 발원지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사업에 설계비 등 7억1000만원이 확정됐다.

망월동 구묘역은 민주열사들이 잠든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했으나, 이번 예산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자 성역화된 추모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5·18 당시 시민들의 생명을 살려냈던 ‘옛 광주적십자병원’ 역시 보존 및 활용 사업비 4억4000만원을 확보해 역사적 원형 보존을 위한 첫삽을 뜨게 됐다. 서남권 공공의료의 거점이자 5·18 최후의 항쟁지 중 하나였던 이곳은 미래 세대에게 오월 정신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시설 예산도 확충됐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5억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10억원)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반영됐으며, ACC 아트애비뉴 조성(2억원)과 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1억원) 사업도 신규로 이름을 올리며 문화 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물 관리’ 예산도 촘촘히 짜였다. 광주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양동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주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3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양동 복개상가 하부의 물길을 트고 생태를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마중물 예산으로, 향후 홍수 예방과 침체된 양동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산강 수질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 사업에 5억원이 배정돼 영산강 Y벨트 프로젝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도 51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동복호 조류 발생 대비 사업비 9억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예산 20억2000만원도 확보해 시민 안전과 복지망을 한층 강화했다.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 예산도 마련됐다. 시민들의 핵심 대중교통망이 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는 1765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광역 교통망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에는 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는 66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비 238억원과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사업비 50억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에 172억4000만원,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20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2억원), 뿌리산업 공정고도화 지원센터 구축(5억원)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국비 10조원 시대 …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에 탄력
우주·에너지 전략사업 강화…농수축산업 생태계 혁신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조 42억원을 반영하면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는 앞서 발표된 정부 예산안(9조 4188억원)에 국회 심사 단계에서 5854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10조원을 넘기게 됐다. 특히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잔여 예산 등 10개 사업 중 1개(신안 에코습지)를 제외한 9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3일 내년 국비사업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포함, 총 사업비 7조 3479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103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의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년도 SOC 예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5700억원(총 사업비 3조 340억원),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사업비 1722억원(〃 2조 1520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설계비 80억원(〃 6521억원),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사업비 75억원 (〃 490억원) 등이다.

또 광주~강진~완도 간 고속도로 1·2단계 사업 예산 700억원, 국도 77호선(압해~화원, 화태~백야) 예산 2012억원, 완도 고금청용~상정 간 국도 건설 예산 5억원과 영산대교 재가설 사업 예산 10억원 등도 확보해 열악한 전남의 도로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에너지 등 전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도 대폭 확보했다.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총 사업비 485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250억원(〃 2500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비 120억원(〃 495억원),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설계비 5억원(〃 460억원), K그리드 인재 창업 밸리 245억원(〃 490억원) 등이 꼽힌다.

전남도의 농수축산업 생태계를 혁신시킬 예산도 확보했다. 1차 산업의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이 대폭 반영되면서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5억원과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 200억원(총 사업비 2000억원), 농업 AX실증센터 구축 설계비 45억원, AI기반 생육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설계비 30억원,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립 설계비 23억원 등이 증액, 혹은 신규 반영되면서 민간이 AI 첨단 농기계를 개발하고, 국가가 데이터 기반 실증이 뒷받침하는 형태의 ‘전남형 농산업 AX’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예산도 눈에 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이 예측되는 솔라시도(구성지구)에는 하수처리시설·공급용수 공급을 위한 설계비(20억원)가 반영됐고,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비(30억원), 철강·금속산업 AX 지원센터 구축비 28억원 등이 확보됐다.

전남 관광의 글로벌화와 남해안권 관광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도 골고루 반영했다.

특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36개 사업 예산 (663억원)을 마련했다.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원,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 5억원,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4억 원 등이다.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사업비 20억원과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비 2억원, 해안형 산림치유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5억원도 반영됐다.

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비(6억원)와 ‘전남도 5·18 추모 기념관’ 조성사업 설계비(3억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안전교육원 건립 설계비(21억원), 무안천 하류 구간 하천정비사업 설계비(2억원)가 반영되면서 ‘살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내년도 국고 예산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역대 최대인 국고 10조원 시대로 미래 전남 황금시대를 힘차게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12kg + 한약재)
②(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 297-52